



태블릿PC는 이동 중에 신문, 책, 동영상 등을 보거나 급히 정보를 확인할 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PC보다 유용하다. 국내에서 태블릿PC가 불과 2년 만에 대중화된 데에는 통신 여건이나 기술의 발달도 한몫했다. AP_ 연합뉴스

태블릿PC, 생활을 바꾸다

아이패드 이후 새 시장 속속 창출
IT기기 진화의 끝은 어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패드가 양분하고 있는 세계 태블릿PC 시장에 LG전자와 팬택이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LG전자는 지난해 해외에서 옵티머스패드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옵티머스패드 LTE를 국내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고 팬택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 첫 태블릿PC '팬택 엘리먼트'를 선보였다.

본래 태블릿PC는 평판(平板)이나 메모지첩이라는 뜻의

태블릿(tablet)에 개인용 컴퓨터라는 의미의 PC를 붙여 합성한 단어이지만 어느 사이엔가 PC라는 말을 떼고 태블릿이라고만 불려도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을 연상할 정도가 됐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태블릿PC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 대신 태블릿PC를 거치해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처음 내놓은 2010년 1월 이후 불과 2년 만에 대중화가 이뤄진 것이다.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인 LG전자와 팬택, 해외 업체인 리서치인모션과 에이서, 아수스, 아마존닷컴 등이 잇따라 내민 도전장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흔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시장 창출한 아이패드

아이패드의 등장은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PC로 이어지는 정보통신(IT)기기 목록에 태블릿PC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애플이 앞서 만든 아이폰이 피쳐폰(일반 휴대전화) 일색이던 휴대전화시장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스마트폰은 휴대성과 이동성이 좋지만 화면이 너무 작다. 이메일 한두 건을 확인하거나 짧은 글을 쓸 때에는 좋지만 신문이나 책을 보거나 동영상 감상하려면 많이 답답하다. 반면 노트북PC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들고 다니기에 다소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 급히 정보를 검색해야 할 때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아이패드는 시장의 이런 불만과 요구를 고려해 만든 제품이다. 아이패드 이후 나온 태블릿PC들은 노트북PC보다 가볍고 부팅 시간이 매우 짧으며 화면도 7~10인치대로 3~5인치대의 스마트폰보다 훨씬 크다. 걸어서 이동하거나 급하게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앉아서 이동하거나 소파 등에서 편하게 인터넷·도서 등을 볼 때에는 태블릿PC를 쓴다. 노트북PC나 데스크톱PC는 글을 쓰거나 엑셀 등 복잡한 작업을 할 때가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졌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미국 보스턴과 새너제이,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등 5개국 6개 지역에서 벌인 포커스그룹(focus group) 조사 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기존의 PC 사용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태블릿PC를 구입할 때 PC의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제품을 사고 난 뒤에는 PC 대신 태블릿PC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데스크톱PC나 노트북PC는 키보드가 필요할 때나 커다란 화면이 필요할 때에만 찾는다.

애플은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냈다. 아이패드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던



팬택은 첫 태블릿PC '팬택 엘리먼트'가 방수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전망이다. 사진제공_팬택

데에는 통신 여건이나 기술 발달도 영향을 미쳤다. 3세대(3G) 통신 기술로 신속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고 곳곳에 깔려 있는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망 덕분에 별도의 이용료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태블릿PC 확산에 기폭제가 됐다.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아이패드가 세계 최초의 태블릿PC는 아니다. 이전에도 UMPC(Ultra-mobile Personal Computer)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으로 불리는 제품들이 있었다. 최근 아이패드-갤럭시탭과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의 언급으로 알려진 '나이트-리더(Knight-Ridder)'의 원형 태블릿도 아이패드에 앞서 1994년에 나온 것이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은 아이



미국 전자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아마존닷컴도 전자책 전문 단말기 '킨들'의 태블릿 버전 '킨들파이어'를 지난해 내놨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킨들 파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_ 연합뉴스

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전면부가 평평하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를 창출했고 다른 제품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아이패드와 맞선 거의 유일한 태블릿PC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이 태블릿PC용 안드로이드 OS '허니콤'을 내놓기도 전에 7인치 태블릿인 갤럭시탭을 출시했다. 이 때문에 IT 제품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10인치에 가까운 아이패드와 7인치 갤럭시탭 가운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은 다소 느긋했지만 이후 삼성이 '갤럭시탭 10.1'을 내놓기 시작하자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시작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은 전선을 10여 국가로 확대한 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은 제품 판매 전략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 등 하나의 제품만 만들어 전력 투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애플의 아이패드는 제품의 내장 메모리 용량과 색깔만 다를 뿐 디자인과 기능 등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의 제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지역마다, 목표(target) 소비자층마다 각기 다른 제품으로 공략한다. 화면 크기만 봐도 7인치, 7.7인치, 8.9인치, 10.1인치 등 여럿이고 시장에 따라 통신 모듈도 2G, 3G, 4G LTE(롱텀에볼루션) 등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 독일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가치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일부 디자인을 바꿔 출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뛰어난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태블릿PC 줄이어

아이패드 등장 이후 많은 태블릿PC들이 명멸을 거듭하고 있다. PC제조사로 유명한 휴렛패커드(HP)는 태블릿PC '터치패드'를 만들었다가 곧 시장에서 철수했다. 스마트폰 '블랙베리'를 만드는 모바일업체 리치치인모션(RIM)은 태블릿PC '플레이북'을 만들었다가 판매가 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 정책을 택했다. 이런 가운데 에이서와 아수스 등 다른 PC제조사들도 속속 태블릿 PC를 출시했고 미국 전

자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아마존닷컴도 전자책 전문 단말기 리더(Reader) '킨들(Kindle)'의 태블릿 버전 '킨들파이어(Kindle Fire)'를 지난해 내놨다. 여기에 한국의 LG전자와 팬택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태블릿PC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 철수한 HP는 제쳐 두더라도 블랙베리의 최근 부진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RIM은 플레이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저가 PC를 만드는 에이서와 아수스는 태블릿PC시장에서도 실속형 태블릿으로 삼성과 애플을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와 팬택 역시 스마트폰을 만들던 노하우와 전 세계 판매망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두 국내 업체의 태블릿PC도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AT&T라는 강력한 통신사업자를 우군으로 두고 있는 팬택은 최근 공개한 태블릿PC '팬택 엘리먼트'가 방수제품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안드로이드 OS도 스마트폰용 버전인 '진저브레드'와 태블릿PC용 버전인 '허니콤'을 통합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을 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개발의 노하우 상당수를 태블릿PC 개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태블릿PC 다음은?

태블릿PC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을 다소 외면해 왔던 제조사들을 자극했다. 태블릿PC 등장 이후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넘어서야 하는 삼성전자가 가장 적극적이다. 삼성이 지난해 선보인 갤럭시 노트는 태블릿의 장점을 일부 채용한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다. 크기부터가 5.3인치로 4.5인치 안팎인 기존 스마트폰보다 다소 크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태블릿PC보다는 작아서 여성들도 작은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스마트폰은 너무 작고 태블릿PC를 들고 다니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디지



애플이 아이패드 하나에만 집중하는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지역과 소비자층에 맞춰 7인치, 7.7인치, 8.9인치 등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내놓아 판매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사진 연합뉴스DB

털 필기구 S펜도 장착해 손가락으로만 조작해야 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차별화했다.

역시 삼성전자가 만든 슬레이트PC는 태블릿PC와 노트북PC의 중간에 위치한 제품이다. 태블릿PC와 비슷한 모양의 제품이지만 일반적인 PC처럼 윈도 OS가 들어간다. 평소에는 들고 다니면서 터치 화면을 이용하지만, 가정에서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마우스·키보드를 사용해 노트북PC처럼 이용할 수 있다.

태블릿과 노트북PC 사이에 위치한 제품은 또 있다. 칩셋 제조업체 인텔이 PC제조사들에 제시한 울트라북은 태블릿PC의 장점을 일부 채용한 신개념 노트북이다. 먼저 두께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태블릿PC처럼 갖고 다니기 쉽도록 했다. 또 화면의 크기는 키웠지만 좌우 테두리(베젤)는 가늘게 만들어 체감되는 크기를 줄였다. 태블릿PC처럼 전원을 켜고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부팅 시간도 10여 초 정도로 줄였고 절전 모드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일반적인 사용 모드로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울트라북은 지난해 말에야 나왔으므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지만 CES 2012를 기점으로 점차 반향을 얻어갈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보고 있다. 태블릿PC의 등장으로 IT업체가 여러 측면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셈이다. 

권영전 미디어과학부 기자 comma@yna.co.kr